

전남 동부권

기후변화협약 각료급회의 유치전

여수시 “바쁘다 바빠”

추진단, 부처 방문·5만명 서명운동 등 총력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오는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각료급회의'(pre-COP18) 여수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료급회의 여수개최를 위해 지난 2월 초 여수유치 민·관추진단(공동단장 정병재 부시장·정금희 여수YWCA명예회장)을 발족하고 환경부를 방문해 환경부 차관을 면담, 각료급회의 여수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각료급 회의를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이어 개최해 세계박람회 주제구현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해법제시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기후보호 국제도시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각료급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이전에 핵심의제를 다루는 회의이다. 50여 개국 장관급 수석대표와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오는 10월말 또는 11월초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녹차밭 '웃음꽃'

곡우(穀雨)를 사흘 앞둔 17일 보성군 회천면 히동마을 다원에서 올해 첫 녹차 새순을 따는 작업이 한창이다. 곡우 이전에 돌아온 어린 손님을 골라 만든 우전차는 맛이 은은하고 순해서 녹차중에 최상품으로 꼽는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순천의 모든것 3D로 생생하게

市, 관광·부동산 등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순천시는 행정·교통·부동산·환경정보·생태관광 등을 3차원 공간정보와 연계해 고품격 대민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순천시는 "현실세계와 유사한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해 관광, 정원박람회 등 인터넷 서비스와 행정, 교통, 부동산 정보 등을 연계, 어디서나 검색 이용이 가능한 '3D생활지리정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미 구축된 '3D 생활지리정보 서비스'를 교통·부동산·온누리 자전거·통계·날씨 정보 등을 연계한 다양한 공간정보와 현수막·개시판 관리·약수터 수질·대기오염 등 환경정보, 순천만 생태관광 정보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고품질의 서비스로 개선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0월 까지 1억9800만원

을 투입해 ▲대시민용 인터넷 포털 서비스 구축 ▲250동의 주요 관광지 및 건물 등 3차원 모델링 ▲GPS를 이용한 등산로 5개소를 구축,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3D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3차원 공간정보와 함께 서비스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및 수치 지형도를 구축했다. 이어 2006년부터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3D 생활지리정보와 부동산 열람 2개 시스템에 대해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헌옷·책으로 이웃 도와요”

순천시, 내달 25~27일 에코마켓 운영

순천시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12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 기간에 재활용 가능한 한 물품과 미사용 물품을 기증받아 '에코(ECO)마켓'을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직원들과 교육지원청, 기업체, 종교시설, 대형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헌옷과 헌책, 장난감, 신발, 주방용품

등을 기증받는다. 수익금은 이웃돕기 공동 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읍·면·동 추천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에코마켓'에 시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의(061-749-4043).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21일 광양시청 앞 '시민 자전거 대행진'

'광양시민 자전거 대행진'이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양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자전거 대행진은 광양시 청년연합회 주관으로 광양시, POSCO 광양제철소, 자전거동호회,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 대행진 코스(총 8.6km)는 미관광장을 시작으로 중앙 중앙로, 청암로(동측 배후도로)를 거쳐 금호교 입구까지 진행한 후 다시 미관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다시 보는 '순천 왜교성 전투'

총무공 유적 보존회, 오늘 순천대서 학술대회

총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67주년을 맞아 임진왜란 당시 순천 왜교성 전투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순천에서 열린다. (사)총무공 유적 보존회는 18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정유재란과 순천 왜교성 전투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진왜란사

전문가와 지역 향토사학자 등이 참가해 임진왜란 7년 전쟁을 마무리했던 순천 왜교성 전투의 의미와 전투당시 순천지역의 역할 등 종합적인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제논문 발표에 이어 순천 왜교성 전투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대한 열린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유년 전남 동부지역에 남긴 이 총무공의 발자취 ▲정유재란과 순천지방의 실정 ▲왜교·노량해전에 나타난 조·명·일의 기동함재 지형 ▲한·중·일 사료로 본 왜교성 전투 ▲참전기록을 통해 본 왜교성 전투의 실상 등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왜교성 전투가 이뤄졌던 전적지는 여수산단과 온누리 자전거·통계·날씨 정보 등을 연계한 다양한 공간정보와 현수막·개시판 관리·약수터 수질·대기오염 등 환경정보, 순천만 생태관광 정보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고품질의 서비스로 개선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0월 까지 1억9800만원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전 북

1963년 '남원의 봄' 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선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4월 '이달의 기록'으로 '봄맞이 풍경'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17일부터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에서 온라인 서비스 실시한다. 사진은 1963년 남원 춘향제 기념식. /연합뉴스

고창 복분자 '차' 나온다

고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복분자 차 건강 차 음료로 개발됐다. 고창 복분자 연구소는 최근 '복분자 미숙과(未熟果)를 포함하는 차와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결과 복분자 미숙과를 이용한 차는 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고,

또한 알파(α)-글루코시다제 억제 활성이 매우 높아 항당뇨 활성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발된 '복분자 미숙과 차'는 덜 익은 열매를 동결 건조시킨 것으로 차 1g을 끓는 물 120ml에 넣고 5~10분 정도 우려서 복용한다. 정종태 복분자 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한방에서 약으로 사용했던 복



분자 미숙과를 건강을 위한 차로 개발하여 상시 복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음료로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체험학습장 하면 남원 천문대”

4·5월 3900명 예약 '인기'

전북 서남권의 대표적인 과학관인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 항공우

주천문대에 방문예약이 밀리면서 4~5월에 38개 단체 3900여 명이 다녀갈 예정이다. 이는 같은 기간인 2010년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단 신

道, 나라장터 신규입점 업체 등록비 지원

전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제품이 공공기관에서 널리 쓰이도록 조달청 '나라장터' 신규입점 업체에 등록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조달시장에서 도내 업체의 점유율이 미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 입점을

추진하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고창 등 5개 시·군 114개 업체에 17만5000원씩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업체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성과 분석 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시 계약심사·일상감사로 12억 절감

군산시가 부실공사 사전차단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와 용역발주에 실시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로 12억 13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7000만원 이상 공사과 공사비의 10% 이상 설계변경 등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발주 ▲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 등을 4월 현재 41건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 18건에 5억 8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78건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총 119건의 발주전 사전감사 결과 38건에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박영진기자 ryu0418@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토요 문화강좌'

익산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오는 21일부터 8주간 '제10회 토요 전통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전통문화 강좌는 ▲명문가를 통해 본 양반사회(조용현 조선일보 칼럼리스트) ▲조선의 양반과 사립의 시대(정만국 국민대 교수) ▲조선의 양반과 실학

(조광 연세대 교수) ▲조선의 사회 변동과 전복문화(나종우 원광대 교수) ▲안동의 양반문화(이욱 한국국학진흥원 고전 국역부장) ▲고문서를 통해 본 양반사회(김건우 전주대 교수) 등 총 6개 강좌로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o0418@

순창군 '농촌마을 개발사업' 워크숍

순창군은 마을 리더와 주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부안 대평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순창군 5개 권역 마을리더를 비롯해 주민과 담당공무원, 농촌마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순창군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은 ▲구립면 화문산 권역 ▲팔덕면 강간선 권역 ▲쌍치면 방산 권역 ▲금과면 서암 권역 ▲동계면과 적성면 섬진강 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주’ 세계속으로

市-행안부 세계 도시 브랜드 육성 협약

이달부터 7억 투입...기반 구축사업 착수

전주와 전주 한옥마을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도시 브랜드로 육성된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지난 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가 지자체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중이다. 시는 이달부터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한옥마을 골목길 사업 ▲한 스타일 콘텐츠 홍보관 구축 ▲한옥마을 전통문화 도시마케팅 등 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만족도를 높이도록 숙박시설,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간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걷고 싶은 슬로 골목길'을 테마별로 조성해 언제든 지역박

승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슬로시티 개념에 맞는 한옥형 느린 우체통과 한지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세계화 마케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는 영화, 한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 상품 전시판매장을 만든다. 행안부는 업무협약에서 전주 한옥마을을 차별화된 세계화 성공모델로 육성하도록 특별교부세 지원과 후속 대책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브랜드 위원회는 전주 한옥마을을 국가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세계화하는 큰 사업인 만큼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